

2020. 7. 19. **안중 제16주일 (농민주일)**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마태 13,37-38)

여수 묘도 다랭이논
교구 가톨릭사건회

제1독서 지혜 12,13.16-19 **제2독서** 로마 8,26-27 **복음** 마태 13,24-43 (또는 13,24-30)

화답송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주 님 당 신 은 어 지 시 고 용 서 하 시 는 분 이 시 으 니 다 -

복음환호송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영성체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생태적 회개로 나아가는 길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농촌과 먹을거리의 현실은 1990년과 현재(2019년 통계)를 비교하면 식량 자급률이 43%에서 23%로 반토막 나고, 1970년 1400만에 이르던 농업 인구는 666만에서 224만으로 줄었습니다. 농촌의 소득은 도시가구 소득 대비 65%이며, 절대 빈곤율은 대도시보다 두 배가 높습니다. 분포도를 보면 전체인구가 100명이라고 하면 도시인구가 94명 농촌인구가 6명, 결국 도시는 6명의 수고에 기대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는 농업 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인류의 생존에 현실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 동안 뜻밖의 집중 호우나 가뭄, 폭염, 한파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농산물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 “금번의 사태는 인류가 생태계 위기를 무시한데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자연nature의 응답respons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서 화석 연료 사용 감축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기후변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그리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이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고민하자고 촉구하셨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생명과 생태적 가치’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 근거한 미래

세대의 새로운 가치를 공유하지 못한 채, 사회경제 체제의 표면적인 재정비 내지 단기 정책만으로는 또 다른 팬데믹 위험 상황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5년 전 교황님께서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통하여 제시하신 각 개인과 집단만의 이익을 뛰어넘는 ‘생태적 회개’가 참으로 요구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인간을 격리했더니 그 짧은 기간 가려졌던 지구의 모습이 복원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안되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최고의 활동은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 운동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챙기고, 농민들을 위하여, 지구를 살리는 생명의 식탁을 차리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진 시대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마태 25,13)

김양수 프란치스코 신부
농민사목 담당



신실한 한국인들 I My faithful Koreans

하롤드 헨리 신부
1951년 2월

위기는 곧 기회

한국전쟁은 참으로 비참했지만, 한편 한국 신자들의 영웅적 신앙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매일같이 수 시간 동안, 게다가 기약도 없이 굶주리고 매 맞으며 취조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 소지품마저도 몰수를 당하면서, 한국의 남녀 교우들은 그들의 신앙을 영웅적으로 지켜내었다.

특히 이곳 목포 골롬반 선교회 본부의 세 젊은 직원들은 실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직원들은 배교하라는 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그들과 1500명의 천주교 신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총살 대상자 목록에 올라있었지만, 한국군 해병대가 때마침 목포에 도착하여 -하느님의 섭리이리라...- 온전하게 구조되었다. 해병대의 상륙이 하루만 늦었더라도 그들의 목숨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

공산군이 목포에서 철수하자 지역에 남아있던 공산주의자들이 복면을 쓴 채 칼을 들고 일어나 살해와 약탈을 자행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집에 질린 49명의 가톨릭 신자들을 총살하기 위해 골롬반 본부의 창고에 가두었다. 다행히 한국군 해병대원 두 명이 그들을 구출하였다.

하느님의 섭리

기적적인 탈출 사건들도 또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전교회장²⁾이던 김 바오로를 이곳에서 가까운 야산으로 끌고 가 총살하려 하였다. 바오로는 이날 자신 때문에 자녀들이 희생될 거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날이 바로 자신의 처형 날이 된 셈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이 총살 준비를 하고



산정동 본당 전교회장이었던 김 바오로 회장
(故 김용배 안드레아 신부 부친)
사진제공 : 산정동 본당

있을 때 하늘에 미군기 한 대가 뜨더니 기총을 소사하여 그를 죽여버렸다. 바오로는 담담한 어조로, “그날은 결국 나를 처형하려는 자가 희생되는 날이 되고 말았지요.”라고 전했다. 바오로는 그 후로도 신자들의 집을 돌며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였다.(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1) 「The Far East」는 대한민국에 왔던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신부들이 사목활동의 성과와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글로 썼고, 이를 실은 잡지다.

2) 전교회장은 한국 천주교회 창설 초기부터 준(準)성직자라고 할 정도로 교회 발전의 토양이었다. 특히 유급 전교회장은 근대 한국 천주교회에 들어와 새로이 설치·운영된 유급의 직분으로 전교사무에 집중한 전문직 인력이었다. 정해진 임기가 있기 보다는 '평생' 헌신이 기본 원칙으로, 전문적 훈련을 거쳐 본당 신부의 지도 아래 교리교육과 강연, 본당사무 등을 통한 선교의 현장에서 헌신적 활동을 하였다. 유급 전교회장은 근대 이후 한국 천주교회의 성숙한 변화와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낸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다.

제25회 농민 주일 담화

생명 농업, 지구와 인류의 희망입니다!

인류의 위기

2020년 인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 위기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도전에 직면하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시 세계의 바이러스에 인간이 어쩌면 이렇게 무력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지 놀라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변종 바이러스들이 끊임없이 우리 사회를 공략해 올 때, 과연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암중모색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산업화된 농업

20세기 후반 농업은 산업화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급절로 증대되었습니다. 온난화의 주범인 화석 연료를 태워 공장에서 생산한 화학 비료와 화학 농약 덕분에 작물의 생산량은 크게 늘고 농촌의 노동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옮겨가면서 부가 축적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유해진 이들도 있지만, 아직 전 세계에서 10억 명에 이르는 인구가 굶주림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현실은, 농업의 산업화가 농업의 바람직한 길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자본을 기반으로 산업화된 농업을 운영하는 이들은 큰 수익을 내지만, 영세한 농민들은 힘겨운 노동과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전 세계 석유의 30퍼센트가 농업에 사용되고, 식량 생산의 95퍼센트가 석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실가스의 4분의 1이 산업형 농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에 의존하는 산업형 농업은 토양 생물을 실종시키며 토양 산성화와 수질 오염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산업화, 도시화만이 살길이라고 농업과 농촌을 천시하며 살아온 세월이 반세기를 넘어섰습니다. 젊은 세대가 농촌을 떠나고, 노인만 남겨진 농촌 사회는 초고령화되어 농촌 공동체의 붕괴 위기, 환경과 식량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땅은 죽어 가고, 우리 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3퍼센트로 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곡물 생산국들이 식량 수출을 통제할 경우 우리나라는 당장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농업을 그저 이익

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효율과 경쟁이라는 시장의 논리로만 평가하면 우리 사회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우리 나라에서 산업화로 농촌의 붕괴가 시작되자, 한국 교회에서는 농민들 스스로 ‘가톨릭 농민회’를 세워, 생명 중심의 가치관을 토대로 하느님의 창조 질서 보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수입 농산물로 우리 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을 때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을 시작하여 농업과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세상,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는 생명 가치를 확립하고자 예언자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농민들은 유기 순환적 농법으로 토양과 생명을 회복시키고, 도시 소비자들은 생명 농산물을 소비하며 지지해 주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농촌과 도시가 함께하는 생명 공동체 운동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농민이 짊어진 짐은 너무 무겁습니다.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마태 25,13)

예수님께서서는 종말이 언제 어떻게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우리 농업이 직면한 현실, 우리가 마주한 위기를 깨닫고, 근시안적인 시장 가치만 추구하기보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바라보며 농촌과 농민을 살려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과 창조 질서를 보전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모든 생명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라야 인간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을 통하여 사회 복음화를 이루어 갑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 우 일 주교

그때 그날 「전쟁과 사랑」



세상이 점점 극한상황으로 치닫고 뉴스거리는 충분히 자극적인데도 요즘은 많이 놀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인류의 비참한 사건을 치른 운명 공동체 안에 사는 인간의 상처 속 무의식의 두려움을 외면하고픈 심리 작용도 있겠다 싶습니다.

안락함과 부유함 속에서 책 읽기를 멀리해 왔던 현대인들이 이 여름을 지내면서 꼭 읽었으면 하는 소설책 한 권 속으로 초대합니다. 194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일본 소설입니다. 이미 「침묵」이라는 소설로 널리 알려진 일본 작가 엔도 슈사쿠의 서사적인 장편소설 「전쟁과 사랑」은 일본 나가사키 우라카미를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사치코와 슈헤이, 그리고 그들이 어린 시절에 만난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 이 세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슈헤이와 사치코는 어릴 때부터 함께 우라카미에서 자란 친구이면서도 성장한 후에도 이성으로 다가서지 못하는 평행선과 같은 일방적

인 사랑의 고독을 바라보게 합니다. 슈헤이라는 젊은이를 통해 저자는 일본문화와 종교 관습에 반항하는 독특한 갈등을 상징으로 드러냅니다. 그와 다르게 사치코는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 매사에 온순하고 평범한 여성의 모델로 이 소설의 마지막까지 그 흐름을 따라가게 합니다. 박해시대를 지낸 1940년대에도 나가사키 그리스도교인들은 외국 문화와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시선을 감내하며 살아갑니다. 이로써 운명처럼 맞이하는 죽음과 생명이라는 저변에 깔린 철학적 물음 앞에 서게 되는 슈헤이와 게이오 대학교의 친구들 대화가 은유적으로 대비됩니다. 그런 슈헤이를 무작정 좋아하는 사치코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작가는 섬세한 감정 변화를 숨긴 여성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패전을 목전에 둔 일본군의 마지막 출격에 가담한 슈헤이는 사치코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일본 해군특공대 요격요원으로 전사합니다. 일명 가미카제의 희생을 자처한 것입니다.

한편, 일본 선교지를 떠나 폴란드 고향으로 돌아간 콜베 신부는 세상의 모든 희망이 끝나는 마침표처럼 광기가 극치에 달했던 독일 나치 강제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 수감됩니다. 혹독한 하루하루의 삶을 엔도 슈사쿠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듯 긴장과 고통의 풍경들을 미장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콜베 신부는 죽음에 선택된 한 죄수의 울부짖음을 보고 그를 대신해 아사 감방에 갇히고 1941년 8월 14일 끝내 석탄산 주사를 맞고 천국으로 향합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다”고 표현한 한 문장 안에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스러져 간 콜베 사제를 통해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작가의 메시지는 충분한 것이겠습니다. 한편 사치코, 그녀는 일본의 패전 후 30년이 지나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예요. 일본 어디에나 있을 그냥 보통 주부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 인생에도 하느님 당신께서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행복, 자녀를 얻은 기쁨, 그리고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었지요. 행복과 기쁨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잃은 고통과 슬픔도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주신 속제는 너무나 많지만… 감사드립니다…”

인생은 어쩌면 사치코처럼 지금의 모습대로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과 사랑 사이에서 주인공들은 인생의 변곡점을 어디에 찍었는지 독자의 상상에 맡긴 이 소설 한 편이 미완성의 그리움에 젖게 합니다. 전쟁처럼 감염병과의 싸움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자신의 평범한 삶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전영금 세실리아 수녀(성 바오로딸 수도회)



교구장 대주교님 동정

7월 19일 사목방문(신안 인덕)

7월 23일 전국 세나투스 간부모임 미사



총대리 주교님 동정

7월 21일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이사회

사제 인사이동

사 제	발령 직무	현 직무
장민휘	비아동 주임	안식년
박옥규	유촌동 주임	염산 주임
조창현	휴양	안식년
박병철	안식년	교구 이주민사목
유창훈	휴직	유촌동 주임
황성호	사회복지회 부국장 겸)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겸) 교구 이주민사목	사회복지회 부국장 겸)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김소진	염산 주임	비아동 주임
최 철	사회사목국 부국장 (경찰사목)	군종

부임일 : 2020년 7월 23일

군중사제 인사이동

사 제	발령 지	부임일
최 철	전역	7.1
이재경	전해해군 성당	7.3
윤형식	충무 성당	7.3
김안식	해군교육사 성당	7.3
김경옥	화성대 성당	7.3
박진호	한성대 성당	7.5

성소국

예비신학생 중등부는 7월 모임이 없습니다.
다음 월모임은 9.20(주일) 13:30입니다.

예비신학생 지원반 월모임

일시 : 7.26(주일) 10:00

대상 : 고3, 청년 사제성소자

장소 : 평생교육원 / 문의 : 062) 380-2280~1

지원반 예비신학생 여름과정

일시 : 7.31(금)-8.2(주일) 2박 3일

대상 : 2020년 지원반(고3, 청년 사제성소자)

장소 : 이사벨레떼 영상원

문의 : 062) 380-2280~1

광주인권 평화재단

2021년 풀뿌리 공익활동 지원 사업 공모

지역 내 민주·인권·정의·평화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접수 : 8.31(월)까지 / 발표 : 10.20(화)

사업 : 2021.1-12월(1년)

지원 : 사업별 500만 원 이내

신청 : 인권과 평화, 환경, 지역자치 등

※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참조

문의 : 광주인권평화재단 062) 234-2737

홈페이지 www.ghpf.or.kr

cpbc 광주가톨릭평화방송

www.kjpbcc.com FM 99.9MHz FM 99.5MHz

f 페이스북 kjpbcc99.9mhz t 트위터 kjpbcc

오늘의 강론 [월-토 (본방송) 06:50-07:00] [월-금 (재방송) 16:50-17:00]

7.20(월)-22(수) 김성현 신부(봉선2동 본당) / 7.23(목)-25(토) 김기수 신부(산수동 본당)

'룩! 쏘는 정치 이야기' [7.22(수) 17:10-17:30]



방송중인 김선교 부국장님과 김대현 원장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이 출연하여 중앙과 지역의 정치 이슈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과 함께 이면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방송 들으면서 문자(#5005번, 100원 정보이용료) 보내주시거나 어플 'cpbc뽕'의 '뽕톡'을 이용하면 무료로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새 어플 'cpbc뽕'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1.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cpbc뽕' 어플을 내려 받은 뒤 '광주'로 지역 설정을 합니다.
2. 왼쪽 상단 '≡' 클릭→하단 '◎ 환경설정' 클릭→'로그인' 클릭→'가입하기' 선택 후 회원가입 진행→실명인증

'항이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월-금 14:00)'와 시사프로그램 '함께하는 세상, 오늘(월-금 17:00)'을 'cpbc뽕' 어플로 들으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뽕톡(대화방)-회원들만 사용가능'으로 보내주시는 분께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www.kccei.com

광주가톨릭문화원 가톨릭캘러리 현 책다하기사랑도서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T. 062) 380-2218

신규 수강생 모집

교리신학원 [신학] 세계교회사/그리스도론 [성서] 공관사도 / 역사서

세계교회사 [기간] 9.2-10.21/수/7주 [시간] 14:30-16:30/19:00-21:00 [수강료] 5만 원 [강사] 최용감 신부
그리스도론에 의해 창설되었던 신앙공동체인 교회가 하느님을 이해하는 역사의 과정으로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수행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목입니다.

그리스도론 [기간] 10.28-12.9/수/7주 [시간] 14:30-16:30/19:00-21:00 [수강료] 5만 원 [강사] 김일두 신부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인가'라는 문제는 이 세상에 태어나신 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하느님이시다는 뜻으로 우리 신앙의 기초이며 바로 그리스도론이 됩니다.

공관사도 [기간] 9.3-10.22/목/7주 [시간] 14:30-16:30/19:00-21:00 [수강료] 5만 원 [강사] 최종훈 신부
마태오, 마르코, 루카의 세 복음서 간의 상호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들의 활동을 통한 교회의 발전을 전하고 있습니다.

역사서 [기간] 10.29-12.10/목/7주 [시간] 14:30-16:30/19:00-21:00 [수강료] 5만 원 [강사] 윤영남 신부
역사서는 여호수아기에서 마카베오까지를 일컫는 명칭입니다. 역사서는 하느님께서 섭리하신 이스라엘과 세상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수많은 인물과 사건을 통해 하느님의 세상 구원 과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 7.11(토)-12(주일) 연도(초급)교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9.12(토)-13(주일) 동일한 과정으로 변경하여 진행합니다.

• 인터넷 www.kccei.com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및 온라인 결제 가능 • 문의 : 062) 380-2210~5

• 교육입금계좌 : 광주은행 170-107-051747 (재)광주구천주교(교육원)



사회복지법인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뽕 다섯 물고기들' 후원 안내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에서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교구 내 산하 사회복지시설, 교정사목, 병원사목,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농협 : 605-01-353182

광주은행 : 019-107-310370

우체국 : 500066-01-013298

국민은행 : 551-01-1449-309

후원회원을 위해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감사미사 봉헌

- '뽕 다섯 물고기들' 회보 발송(반기별)

- 후원금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기관 · 단체

파티마성모님요청지향 교구셀묵주기도

일시 : 매주 월요일 09:30~11:00
장소 : 평생교육원 3층 경당
지향 : 세계평화, 죄인들의 회개,
남북평화통일, 가정성화
문의 : 파티마세계사도직 010-6490-8475

한티순교성지 피정

기간 : 7.31(금) 17:00~8.2(주일) 13:00
주제 : 예수마음기도
강사 : 권민자 수녀(예수마음선교수녀회)
문의 : 054) 975-5151

제1회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진대전

내용 : 기쁨, 환희를 표현한 작품,
미풍양속에 위배되지 않는 국내외 작
규격 : 컬러 및 흑백 11×14인치
접수 : 8.3(월)~21(금)
심사 : 8.28(금), 공개심사
시상 : 10.7(수) 15:00
접수, 심사, 시상 :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문의 : 010-3647-6148

목포 연산동 묘지별초 신청

일시 : 9.10(목) 별초 시작
신청 : 8.3(월)~31(월) 접수
금액 : 묘1기당 2만 5천 원(입금 후 전화)
계좌 : 농협 301-0123-1614-11 광주구천주교회
문의 : 061) 276-0735, 0738

예수의 소화수녀회 - 소화영성학교

기간 : 9.19(토)~12.19(토), 세번째 토, 총 4회
내용 : 미사, 성사, 강의(학기별 5만 원)
문의 : 010-4415-4022 (용대로 74번길 25)
*9월 강의 "성녀소화데레사 영성의
교회사적 조명" (옥현진 주교)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일시 : 7.27(월)~29(수), 7.31(금)~8.2(주일),
8.13(목)~16(주일), 8.25(화)~27(목),
8.31(월)~9.2(수)
대상 :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1인 1실 가능
넓은 강당과 식당으로 거리두기 가능
문의 : 064) 796-9181

제주도 관광안내(제주운전기사사도회)

가족, 호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 064) 758-6476, 010-4566-64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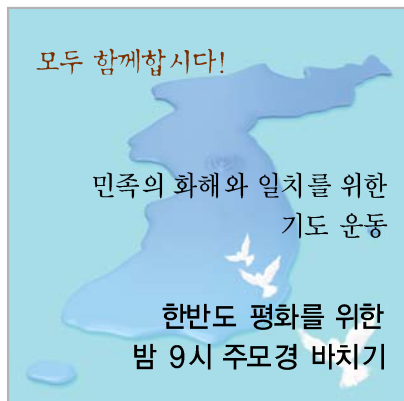
수도회

예수고난화하기침묵피정

2차 - 8.11(화) 17:00~14(금) 13:00
3차 - 8.14(금) 17:00~16(주일) 13:00
장소 : 일곡동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문의 : 062) 571-5004

예수고난봉쇄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 수시로
장소 : 청주 예수고난봉쇄수녀회
문의 : 043) 295-5940
cpnuns@korea.catholic.or.kr



교회 내 성폭력 피해 접수처

전화 : 성폭력대책위원회 062) 380-2238
전자우편 : fiatvdomini@hanmail.net

빛고를 휴간 안내

하계 휴가철을 맞아 8월 2일자
주보 '빛고을'을 휴간합니다.

교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피해, 판로개척 곤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사회적
배려기업인 소상공인, 여성 기업, 장
애인 기업 등을 지원하여 천주교의 나
눔과 섬김 정신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박진수 부각

www.parkjinsoobugak.com

전통식품인 찹쌀김부각을
제조하는 장애인기업

- 장흥무산김과 나주평야 찹쌀로
만든 저염식 영양간식이며 명절
선물로도 좋은 찹쌀김부각
5팩 20,000원
- 완도산 생다시마와 찹쌀로 만든
최고의 영양간식 다시마부각
5팩 20,000원

구입문의 : 062) 941-8551, 010-3602-6623
광주 광산구 사암로 92번길 119-19

지원당마님

모든 사람이 함께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약선차,
꽃차를 만드는 장애인기업

- 심혈관 질환과 체내독소제거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발효비트차
18,000원
- 루테인 함량이 높아 눈에 좋고
피부탄력, 미백에 좋은 메리골드꽃차
18,000원
- 성인병예방, 노화방지, 피부미용,
골다공증예방에 탁월한 연잎차
18,000원

구입문의 : 061) 761-2138, 010-4623-6363
광양시 광양읍 희양현로 23-1

**김희중 대주교,
교황청 종교간 대화 평의회 재임명**



프란치스코 교황은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를 5년 임기로 교황
청 종교간 대화 평의회(Pontifical Council for Interreligious
Dialogue) 위원으로 재임명하였다.

김희중 대주교는 지난 2007년 10월 5일자로 종교간 대화 평
의회 위원으로 임명된 바 있다.

교구박물관 기증 안내

교구에서는 교구민들이 소장하
고 있는 유물(교회와 관련하여 역
사적 가치가 남겨진 물건으로 오
래된 성물, 물품, 그림, 서적, 서한,
사진 등)을 기증받고자 합니다. 기
증된 물품은 교회사연구소의 협력
을 받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 전화 : 사무처 062) 380-2812